

#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100일 입법·예산 전쟁 시작

### 입법 과제 완수 vs 강한 야당 시험대 639조 내년 예산안 첫 날부터 신경전 여야 정국 주도권 잡기 힘겨루기 예고 지역현안 입법 활동·국고 예산 확보 광주·전남 정치권 존재감 부각 총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 여야의 '100일 입법·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협치의 흐름보다는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어 함로가 예상된다. 지난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광주·전남 정치권도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활동 강화와 국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 살리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맞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라고 보고 정부·여당의 실책을 제대로 견제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버리고 있다.

당장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외면·부자 감세의 '비정당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방만 재정'을 거론하며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주요 입법 사항으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상환성화법·반도체 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열거했다.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안정 법안 등을 주요 입법 추진 사항으로 내걸었다. 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 차가 작지 않아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도 첨예해질 전망이다. 여야가 지리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이 정권 교체 후 첫 정기 국회인 만큼 정권의 실정을 낱알이 드러내고 바로잡는 기회로 삼겠다고 버리고 있다. 당장, 탈북어민 복속 사건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논란,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임명된 '일박기 인사'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민주주의 퇴행을 정기국회를 통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

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 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 입법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 등도 검토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도 이번 정기국회에 총력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율이 잇달아 저조하게 나오는 등 민심이 심상치 않게 됐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세 차례나 연속 지도부 진출 실패에 따른 후폭풍까지 겹치며 따라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정치적 존재감을 강화, 차기 총선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추석 직후, 회동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한편, 각 삼임위별로 챙겨야 할 지역 국고 예산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고 확보를 위한 삼임위와 예결위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은 물론 쌀값 정상화법,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저조한 투표율은 지역 민심의 실망감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지역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살리지 못한다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김의장 “태풍에 걱정 많으시겠다” 한총리 “물이라면 겁 난다”

### 정기국회 개의 앞서 5부요인 환담 쌀 의무 수입 두고 의견 교환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원일인 1일 국회에서 김경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사전환담을 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5부 요인과 감사원장이 만나 민생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상견례를 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김 의장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태풍 '힌남노'를 언급하며 "추석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텐데, 총리님이 걱정이 많으시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물이라면 겁이 좀 나네요"라고 대답했다.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전국의 피해를 언급한 것이다.

김 의장과 한 총리는 쌀 수입을 두고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장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40만t 정도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농협 입장에서는 국제 쌀 가격보다 우리 쌀 가격이 높고, 쌀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씩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수입) 쿼터가 있어도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고 ODA(공적개발원조)를 늘려야 하니 쌀 산지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 보내주면 국내 시장의 적자 부담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WTO 출범 때 관세화를 안 하는 대신 일정량을 사도록 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협상은 한 번 해볼만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을 하다 보면 한 번 잘못된 제도, 규정, 법을 없애기는 정말 힘들다"라며 "늦더라도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식재산, 국익 지켜내는 성장동력”

### 지식재산의날 기념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연구개발, 문화예술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창출되는 지식 재산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지식재산의날 기념식'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축사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인구·GDP(국내총생산) 대비 특허 출원은 세계 1위를 달성했다"며 "세계를 열광시킨 한류 콘텐츠 수출로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2020년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노고로 우리 지식재산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

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지금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미래 전략기술과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양질의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 보호에 노력해온 지식재산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지식재산의날 주제인 '지식재산과 청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혁신하다'를 거론하며 "청년들이 미래를 향한 꿈과 상상을 실현하고, 마음껏 도전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윤핵관 영향력 끝”...尹의 정치 본격화?

### 대통령실 인적쇄신 마무리 단계 김대기 실장·6수석에 쏠리는 힘

'윤핵관'의 2선 후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 초 여의도에 분산돼 있던 권력의 구심점이 용산으로 집중되고,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국정 장악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윤핵관'이 집이 된 측면이 있다"며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들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서실이 윤 대통령의 허락이 아니라 '윤

핵관'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비서실장과 수석이 자율권을 갖게 됐다"라고도 했다.

앞서 26년간 몸담은 검찰을 떠난 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윤 대통령에게는 전임 대통령들 같은 '가신 그룹'을 가지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 정부 초대 대통령실을 꾸리면서 비서실장부터 수석비서관, 말단 행정요원까지 '윤핵관'의 인사 추천에 기밀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떤 사람은 권성동, 어떤 사람은 장재원, 어떤 사람은 이철규, 어떤 사람은 안철수 라인에 타고 대통령실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구심점이 윤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침단우리병원**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